



## 유천호 강화군수 부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



### 리스펙트 도우너 모임 가입...선한 영향력 기부 확산 앞장

강화군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리스펙트 도우너 모임에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인현 여사가 제1호, 제2호로 가입해 최초의 부부 도우너가 되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리스펙트 도우너는 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과 선한 영향력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와 이인현 여사는

“재단이 올해 첫 출범 했지만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특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강화군이 전국 최고의 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오윤근 이사장은 “뜻깊은

일에 앞장서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가입하신 회원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복지재단의 기부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 중이며, 기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032-933-103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미순 기자

## 인천도시공사,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앞장

###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가 문제해결 협조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5일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및 장비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24일 현장 안전 회의에 참여한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2-1공구, 3-1공구, 도시시설물(3-1)

교량공사, 터널공사의 건설근로자 22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는데 건설근로자가 iH에 임금체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iH는 건설 공사 기성 지급 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적으로 공사대금 정상지급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와 현장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정상지급 되었음을 알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모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 데스크 칼럼



김양훈  
위원

## 남동구, ‘주민이 싫은 사업만’ 추진

### 행정력 소비하는 불통의 끝판왕, 어디까지? 박종호 호, 이대로 가면 주민 심판 꼭 필요

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는 것, 레일바이크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대비해 대체할 다른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래관광벨트 용역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해 소래 유람벚길과 소래포구 레일바이크 둘레길 조성의 검토는 환경파괴란 주민들 원성은 크다. 언제 나온 말인가? 과거부터 유람벚길 타령 또한 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은 지배적이었다. 과거 기초단체부터 흘러나온 말이다. 철 지난 사업을 구상했다는 자체가 곱지 않다.

박종호 구청장 1호 공약 생태대전 개발 예산이 없는 막대한 현실임에도 외면하고 소래 사업을 추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내실 있게 잘하라는 여론이다. 구청장을 두고는 정책 기초가 복지인지, 사업인지 분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건전화와 먼 일침은 정

책을 잘 분석하라는 것이다.

A 남동구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은 엉망이란 소리와 행정감사에서 철저히 분석할 것이란 의견을 냈다. 본지와 전화통화의 전언이다.

10월 임시회 289회 의회에서는 세무부서장들의 의회 보고는 합계 130억 원 세수가 될 거칠 것이라 전망치는 경기 불황 탓이라고 했다. 박종호 호의 난파가 감지된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주차장 증축 사업이나 어울림센터 신축건물 사업비는 잡혀 있는 예산이다. 지난 구청장이 인천시에서 받은 사업비다. 예산까지 포기하면서 사업들을 좌초를 시키려고 했었다. 어울림 센터의 경우는 위법까지 하면서 지금도 가고 있는 엉터리 행정은 주민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 예코산업단지도 12월 결산을 보아야 한다. 다른 사업을 위해 이도 포기하려는 내부적 의혹은 포착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연수구 주민 특공대 투입 의혹 논란까지 일어 민민 갈등은 첨예했다. 그간 혈세 2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적자 사업이다. 주민의 혈세를 공중분해가 돼 추후 공무원들은 민·형사적 책임도 뒤따를 전망이다.

박종호 호의 1주년 실적을 분석하면 기존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달리 구청장의 공약사업 1호도 해결하지 못해 버벅거리는 실정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큰 문제로 부상했다. 어두운 단면만 보여주는 남동구의 앞날에 주민 탄식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무게를 가져야 한다. 씹지둔처럼 용역비용 등 막 사용한다는 비난 일색이다. 예산이 없어 남동구 사업은



박종호 남동구청장  
[사진 제공=남동구]

사상누각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남동주민들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무리하게 가고 있다고 한다. 박 구청장을 향해서도 불통을 멈추라며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인사라고 성토가 거세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남동구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용역 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용역에서 주민 반대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구청장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